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유 성 렬*

초 록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1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살펴보고 아르바이트 경험, 직종 및 강도와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적인 수준에서 고찰하는 연구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가운데 14.8%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학업 성적과 부적인 관계를, 비행경험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아르바이트 직종과 관련하여 약 80%가 전단지 돌리기를 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이러한 학생들보다는 기타 직종에서 일을 한 학생들이 더 높은 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강도와 학교 성적 및 비행경험과의 관계는 아르바이트 경험과의 관계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심리적·행동적 변인들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있어서 선택효과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중단자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작업강도, 중학생, 한국청소년패널조사

* 천안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전공 부교수

I. 서론

최근 들어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는 증가 추세에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임금을 받기 위해 학기 중 혹은 방학 중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일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거나 대학생에 국한된 현상이었으나, 이제는 적지 않은 수의 중·고등학생들이 재학 중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현상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교육이 대학 진학이라는 최대 과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학교 외부의 장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좀처럼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학생들 사이에서도 아르바이트 혹은 시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문성호, 2003; 한경혜, 2000).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된 이유는 노동시장에서의 직업 경험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과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수와 실제 참여하는 직종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때에는 이러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참여자의 수가 증가하고 참여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노동시장에의 참여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 성적 뿐 아니라 비행을 포함한 행동적인 측면, 심리·사회적인 적응 등 청소년 발달의 제반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특히 성인과는 매우 다른 입장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주는 영향을 성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청소년기가 갖는 독특성과 더불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직업경험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집중되어왔으며(김해동·이창한, 2002; 도종수, 2001; 이철위 외, 2000; 이형하·이용교, 2002; 장원섭, 2001; 한경혜, 2000), 최근에 들어서 청소년의 직업경험이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김기현, 2003; 문성호, 2003).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계점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임금을 댓가로 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나 실제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15세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이철위 외, 2000), 이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주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선택효과(selection effect)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이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비행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 학생들을 일정 기간 반복해서 조사하는 종단자료(longitudinal data)에 기초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¹⁾ 대부분의 연구는 횡단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왔다.

최근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시작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는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청소년들의 생활현실과 활동실태 및 주변 환경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하기 위하여 2003년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차년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08년까지 추적 조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²⁾. 특히 이 조사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비롯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생활 영역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

1) 이러한 선택효과를 통제할 예로는 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자료를 분석한 김기현(2003)의 연구가 있다.
2)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경상 외(2004)의 연구를 참조할 것

와 관련 요일들을 살펴보는데 매우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³⁾.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1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와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된 변수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전단지 배부 등의 특정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이철위 외, 2000) 직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의 여부와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기간과 노동 강도와 학업 및 비행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중학생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을 띤 연구로서 아르바이트 경험과 연관이 있는 변수들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학생의 아르바이트와 제반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추후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2차년도 자료 공개와 함께 아르바이트 경험과 여타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정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 연구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심리·사회적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사회구조와 성격(personality)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직업 경험과 심리적 변화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성격이 생애 과정(life course) 속에서 얼마나 안정적

3) 현재 2차년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택효과를 고려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와 제반 요인들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는 시행할 수 없었다.

으로 유지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직업선택가설에 따르면, 개인은 이미 지니고 있는 욕구, 관심, 가치관 등의 심리적 성향에 근거하여 자신의 직업을 선택한다. 따라서 성인의 심리적 성향은 청소년기의 사회화의 결과이며, 이러한 성향은 상당히 안정적(stable)인 경향을 보인다. 반면 직업 사회화가설에 따르면, 직업 경험은 개인의 심리적 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즉 개인의 성격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직업 경험에 영향을 받을 만큼 가변적인 것으로 본다(Mortimer, 1988).

Kohn과 Schooler의 연구는 직업경험과 개인의 성격 간에는 상호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983). 즉 사람들은 이미 갖고 있는 가치관과 심리적 특성에 근거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직업을 바꾸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의 심리적 성향도 직업 경험에 반응하여 변화한다는 것이다. Kohn(1977)은 직업경험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학습일반화 모형을 제시하였다. 학습일반화 모형에 따르면, 사람들은 직장에서 자신의 모습과 행동을 관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 수행과 성취 여부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자신과 자기 주변에 대한 견해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조망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을 제시해 준다. Kohn의 학습일반화 모형을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기가 자아관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전제하에서(Erikson, 1959) 청소년기의 직업 경험은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직업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개인은 새로운 직업 역할을 담당하게 된 직후에 직업 경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Mortimer, 1988). 따라서 자신에게 매우 생소한 환경 조건에 직면하게 되면 이에 매우 강하게 반응하고 적응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청소년들은 변화

에 매우 개방적이며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나이가 들에 따라 사회적 환경과 기대는 점차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소년기의 직업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 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크게 3가지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는 청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접근이다. 즉 노동시장 참여 경험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감과 책임감을 획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긍정적인 직업 가치관을 갖게 하며 미래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rtimer, et al., 1992b; Mortimer and Finch, 1996).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학교, 직장 및 교우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이러한 경험은 다중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신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Elder and Caspi, 1990).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된 연구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입장은 아르바이트 경험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Greenberger와 Steinberg(1986)의 연구에 잘 나타나있다.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갖게 되는 직업들은 대부분 별도의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은 단순직에 국한되어 있으며, 따라서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 특히 청소년들은 직업 경험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을 익히기 전에 직무 수행과정에서 성인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지나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의 지속기간이나 강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내게 되어 적절한 교우관계나 가족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학업에도 소홀하게 된다(Mortimer, et al., 1992a). 또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과의 접촉 기회 및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나 흡연과 같은 행위에 쉽게 노출되고, 성인들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모방함으로써 청소년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Shanahan, et al., 1991).

청소년의 시간제 근로와 관련된 세 번째의 입장은 청소년이 수행하는 작업의 성격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Mortimer와 그의 동료들의 주장에 따르면, 청소년의 근로 경험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한 지적이라는 것이다. Kohn과 Schooler(1983)가 수행한 작업의 성격 특히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율성의 정도와 심리적 기능에 관한 연구에 기초하여, Mortimer와 그의 동료들은 청소년이 작업장에서 수행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 근로 경험이 주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Mortimer, et al., 1994; Mortimer and Finch, 1996). 이러한 입장은 청소년의 직업 경험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주요 독립변수를 단순히 근로 경험의 유무나 작업 시간에 국한시켜온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청소년이 수행하는 작업의 성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시간제 근로 경험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김기현, 2003; 문성호, 2003)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주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선행작업으로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1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시간제 근로 실태를 살펴보고, 아르바이트 경험과 학업 및 비행과의 관계를 탐색적인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학생들의 시간제 근로가 일부 직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시

4)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는 한경혜(2000)를 참조할 것

간제 근로의 직종에 따라 관련 변수들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근로기간 및 작업 강도와 심리적·행동적 변수들과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1차년도 자료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3년에 1차년도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3,449명으로 이 가운데 남학생은 1,725명이고 여학생은 1,727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문성호, 2003; 이철위 외, 2003; Mortimer, et al., 1992a, 1992b)를 바탕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와 관련한 변수로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아르바이트 횟수 및 직종,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의 기간과 주당 근무 일수 및 일일 근무 시간, 시간당 보수 및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 등에 초점을 두었다. 아르바이트 관련 변인으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가정의 월평균 소득,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정도), 학교 성적 변수(학급 및 전교 석차), 학교 수업과 및 사교육에 사용하는 주당 시간, 음주와 흡연을 비롯한 비행 경험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한 변수들은 조사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직접 응답하였고, 이를 제외한 모든 문항들은 학생들이 직접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SPSS for Windows(Version 10.1)를 사용하였다. 아르바이트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로 기술적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르바이트 경험과 가정 배경 및 학교 성적과의 관계, 아르바이트 강도와 비행 경험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t-test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직종과 강도를 포함한 아르바이트 경험과 비행 경험과의 관계는 χ^2 검정을, 아르바이트 강도와 학업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는 단순상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자료에 나타난 시간제 근로 경험의 실태와 관련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한 다변량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IV. 연구 결과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참가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시간제 근로 경험을 살펴본 결과 전체 3,449명 가운데 14.8%에 해당하는 510명이 한 번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들 가운데에는 14.7%인 253명이, 여학생은 14.9%에 해당하는 257명이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은 남녀 학생들 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hi^2=.04$, $p=.842$). 이러한 수치는 이철위 외(2000)의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 실태에 대한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다고 보고한 29.4%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본 연구의 대상이 중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는 학생 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리 낮은 수치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미네소타 세인트폴 지역에 거주하는 9학년(우리나라의 중학교 3학년에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한 조사(Mortimer, et al., 1992a)에서 82.5%가 시간제 근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정도는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 중2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횟수

아르바이트 횟수	빈도	백분율(%)
1회	251	50.3
2회	96	19.2
3회	56	11.2
4회	24	4.9
5회	29	5.8
6회 이상	43	8.6
계	499	100

지난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횟수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51명은 지난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횟수가 1회라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이 3회 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나 6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5.8%에 이르고 있다.

<표 2>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직종 및 시작 이유

직종	빈도	백분율(%)	이유	빈도	백분율(%)
전단지 돌리기	404	79.2	생활비를 벌기 위해	13	2.5
배달(우유, 신문 등)	15	2.9	학비를 벌기 위해	3	.6
판매	13	2.5	용돈이 부족해서	249	48.8
서빙/카운터/배달	49	9.6	취업 경험을 쌓기 위해	19	3.7
건설현장·공장노동	8	1.6	여가 시간을 활동하려고	129	25.3
주유소	4	.8	주위의 권유로	74	14.5
행사장 도우미	4	.8	친구를 돕기 위해	11	2.2
아기·노인 돌보기	4	.8	운동 삼아서	2	.4
기타	9	1.8	호기심에	7	1.4
			부모님 가게를 돕기 위해	3	.6
계	510	100	계	510	100

<표 2>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직종과 시작 이유를 보여 주고 있다. 흥미롭게도 79.2%에 해당하는 404명은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로 전단지 돌리기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약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카페나 식당 등에서 서빙을 하거나 카운터를 보거나 배달을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판매나 배달과 관련한 일을 한 학생도 약 5.5%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남학생들은 이웃집의 잔디 깎기나 눈 치우기, 여학생들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아기 보기(babysitting) 등의 비공식 부문에 속하는 작업이 초기 단계의 아르바이트 직종인 것(Mortimer, et al., 1992a)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시작 단계가 주로 전단지 돌리기라는 1회성 성격이 강한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전단지 돌리기는 지정된 장소에서 성인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고 보다는 관리나 감독 없이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행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시간제 근로의 성격을 간접적으로나마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표 2>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주된 이유로 부족한 용돈을 충당하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이철위 외, 2000; 문성호, 2003)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동기가 생계형 성격을 지닌 과거와는 달리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3>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71.5%에 달하는 364명이 가장 최근 한 아르바이트의 기간은 1주일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가졌던 아르바이트 직종이 전단지 돌리기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아르

<표 3>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의 기간 및 주당 근무 일수

기간	빈도	백분율(%)	주당 근무 일수	빈도	백분율(%)
1 ~ 7일	364	71.5	1일	224	45.4
8 ~ 14일	31	6.1	2일	75	15.2
15 ~ 21일	31	6.1	3일	64	13.0
22 ~ 30일	60	11.8	4일	15	3.0
31일 이상	23	4.5	5일	33	6.7
			6일	37	7.5
			7일	45	9.1
계	509	100	계	493	100

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45.4%는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근무했다고 응답하였으며, 73.6%는 주당 1~3일 정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한 주간 내내 일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중학교 2학년이라는 시기가 근로기준법상 임금노동을 할 수 없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 학생들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일일 근무 시간 및 시간당 보수

일일 근무 시간	빈도	백분율(%)	금액	빈도	백분율(%)
1시간	58	11.4	~ 1,000원	51	11.6
2시간	144	28.2	1,000초과 ~ 2,000이하	130	29.6
3시간	142	27.8	2,000초과 ~ 3,000이하	110	25.1
4시간	64	12.6	3,000초과 ~ 4,000이하	38	8.7
5시간	46	9.0	4,000초과 ~ 5,000이하	86	19.6
6시간 이상	56	11.0	5,000초과 ~	24	5.4
계	510	100	계	439	100

<표 4>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56%가 하루에 2~3시간 정도 일을 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일일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도 32.6%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하여야 할 점은 여기 나타난 수치들은 학생들의 평일과 주말 근무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6시간 이상 근무하는 학생들의 경우 그것이 평일의 6시간인지 아니면 주말의 6시간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평일의 장시간 근무가 학교 수업 및 활동 참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일 근무 시간에 대한 세분화된 조사가 필요하다.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에서 학생들이 받은 보수는 시간당 1,000원에서 3,000원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가운데 54.7%는 시간당 1,0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보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학생도 28.3%에 달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받는 시간당 보수는 그 범위가 매우 넓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못미치는 시간당 1,000원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11.6%에 달하고 있고 2,000원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을 함께 고려하면, 이러한 수치들은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된 변수들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년간 한번 이상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교 성적, 일주일 동안 학업 관련 활동에 활용하는 시간, 비행 경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t-test와 χ^2 검정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표 5>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따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가구 월평균 소득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의 경우보다 약 23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정도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의 부모의 교육정도보다 낮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학생들보다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이유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수록 사용할 수 있는 용돈의 양에 제한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비교

변수	경험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 : 만원)	있음	483	274.06	226.37	-2.162*
	없음	2,822	297.32	217.25	
아버지의 교육정도	있음	498	4.47	1.36	-4.881***
	없음	2,893	4.78	1.30	
어머니의 교육정도	있음	494	4.00	1.05	-5.510***
	없음	2,883	4.28	1.16	

* : $p < .05$, *** : $p < .001$

<표 6>은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성적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반 석차 평균은 약 20등인 것에 비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15.9등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교 석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로 인해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이 낮아서 학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고 있지 않다.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에서의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부 이외의 영역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일찍부터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르바이트 경험과 학업성적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두 변수간의 관계를 매우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중2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학업 관련 변수 비교

변수	경험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반등수	있다	479	20.2	9.85	8.535***
	없다	2,790	15.9	10.24	
전교등수	있다	446	174.69	112.45	5.214***
	없다	2,557	143.63	116.68	
학교 수업 및 개인 학습 시간	있다	509	40.21	11.36	-3.238**
	없다	2,925	41.92	10.95	
사교육시간	있다	509	13.79	12.84	-3.832***
	없다	2,925	16.04	12.12	

*** : $p < .001$

학생들이 학업과 관련된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과 아르바이트 경험과의 관계는 학교 성적과 아르바이트 경험과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6>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학교수업 및 개인학습과 과외 교습 등 사교육을 받는데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학교 수업 및 개인 학습에서의 차이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사교육과 관련된 시간에서는 2.25시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7>은 아르바이트와 비행경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표 7>에 제시된 모든 비행 목록에서 비행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흡연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26.5%가 흡연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들 가운데 11%만이 흡연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음주의 경우에는 이

러한 양상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아르바이트 유경험자의 50%, 무경험자의 27.3%가 음주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무단 결석, 가출, 성관계 경험, 폭력, 패싸움, 금품갈취, 절도, 남을 놀리거나 조롱하기, 협박 및 왕따 시키기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앞

<표 7>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비행 경험 비교 (N=3,449)

비행 종류		아르바이트 경험			χ^2 (df=1)
		없다	있다	계	
흡연	없다	2,616(89.0)	375(73.5)	2,991	90.44***
	있다	323(11.0)	135(26.5)	458	
음주	없다	2,137(72.7)	255(50.0)	2,392	105.47***
	있다	802(27.3)	255(50.0)	1,057	
무단결석	없다	2,823(96.1)	459(90.0)	3,282	34.56***
	있다	116(3.9)	51(10.0)	167	
가출	없다	2,844(96.8)	466(91.4)	3,310	32.71***
	있다	95(3.2)	44(8.6)	139	
성관계 경험	없다	2,912(99.1)	499(97.8)	3,411	6.12*
	있다	27(.9)	11(2.2)	38	
폭행	없다	2,710(92.2)	429(84.1)	3,139	34.78***
	있다	229(7.8)	81(15.9)	310	
패싸움	없다	2,806(95.5)	456(89.4)	3,262	31.15***
	있다	133(4.5)	54(10.6)	187	
금품갈취 (뺑뺑기)	없다	2,817(95.8)	443(86.9)	3,260	67.75***
	있다	122(4.2)	67(13.1)	189	
절도	없다	2,765(94.1)	445(87.3)	3,210	31.39***
	있다	174(5.9)	65(12.7)	239	
남 놀리거나 조롱하기	없다	2,535(86.3)	402(78.8)	2,937	18.98***
	있다	404(13.7)	108(21.2)	512	
협박	없다	2,826(96.2)	475(93.1)	3,301	9.64**
	있다	113(3.8)	35(6.9)	148	
왕따시킴	없다	2,545(86.6)	415(81.4)	2,960	9.74**
	있다	394(13.4)	95(18.6)	489	

* : $p < .05$, ** : $p < .01$, *** : $p < .001$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가 만드시 아르바이트 경험이 비행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비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미 비행 혹은 문제 행동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대부분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전단지 돌리기이다 (<표 2> 참조).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직종에 따라 아르바이트 관련 변수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8>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직종의 차이

성별 경험여부	남	여	계
전단지	191(75.5%)	213(82.9%)	404(79.2%)
기타	62(24.5%)	44(17.1%)	106(20.8%)
계	253	257	510
$\chi^2 = 4.224$ (df=1), $p = .040$			

<표 8>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한 남학생 가운데 75.5%인 191명이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가 전단지 돌리기였다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82.9%인 213명이 전단지 돌리기를 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에게서 전단지 돌리기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동시장 진입 수단이지만,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보다 조금 더 다양화된 방법을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에 따르면 전단지 돌리기를 한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기타 아르바이트 직종에서 일하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의 지속기간, 주당 근무 일수 및 일일 근무 시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단지 돌리기라는 직종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른 아르바이트 직종과는 달리 전단지 돌리기는 1회성 성격이 매우 강하고 실제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작업 강도가 기타 아르바이트 직종에 비해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단지 돌리기의 지속기간이 평균 8일 정도인 것에 비해 기타 직종의 지속기간은 25일에 달하고 있고 주당 근무 일수나 일 근무 시간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이유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학생들은 전단지 돌리기를 단순히 용돈을 벌거나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커다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거리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표 9> 중2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직종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비교

변수	직종	N	평균	표준편차	t
지속 기간	전단지	403	7.97	20.13	-4.666***
	기타	106	25.30	36.83	
주당근무일수	전단지	388	2.35	1.86	-6.600***
	기타	105	3.97	2.33	
일일근무시간	전단지	404	2.88	1.44	-7.427***
	기타	106	5.32	3.30	

*** : $p < .001$

본 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 지속 기간 및 주당 근무 일수 및 일일 근무 시간으로 측정된 아르바이트 작업의 강도와 가정의 경제적 배경, 학업 관련 변수 및 비행 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아르바이트의 기간 및 강도를 나타내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르바이트 지속 기간과 주당 근무 일수 및 일일 근무시간과의 상관계수는 각각 $r=.384$ 와 $r=.123$ 으로 나타났고 주당 근무 일수와 일일 근무시간과의 상관관계는

5) 아르바이트 직종과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르바이트의 작업 강도와 관련 변수들과의 분석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r=.147$ 이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의 작업 강도를 나타내는 세 변수들이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 관계의 크기는 별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의 강도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두 요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일일 근무 시간과 아버지의 교육 정도 사이에 부적 상관관계($r=-.107$, $p<.05$)가 나타났지만 다른 변수들 간의 단순상관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표 10> 아르바이트 기간 및 강도와 학업관련 변수와의 상관관계

변수	기간	주당근무일수	일일근무시간
반등수	.084(479) ^a	.110(465)*	.104(479)*
전교등수	.012(446)	.057(433)	-.047(446)
학교 수업 및 개인 학습 시간	.147(508)**	.080(492)	-.031(509)
사교육 시간	-.097(508)*	-.086(492)	-.077(509)

a $p < .10$; * $p < .05$; ** $p < .01$

<표 10>은 아르바이트의 기간과 작업 강도는 학업 성적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 성적과 관련된 변수의 값이 높을수록 성적이 낮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등수와 아르바이트의 기간 및 강도 사이에 나타나는 정적인 상관관계는 기존의 아르바이트와 성적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기현, 2003). 특히 주당근무일수나 일일 근무 시간이 많을수록 학교 성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이 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사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이 학교 수업 및 개인 학습 시간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강도와 전교등수 및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예상과는 다른 것으로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은 최근에 했던 아르바이트의 주당 근무 일수와 비행 경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르바이트의 지속 기간과 제반 비행 경험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⁶⁾, 주당 근무 일수는 흡연, 음주, 무단결석, 폭행, 패싸움 및 뺑뺑기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흡연이나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평균 근무일수는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근무일수보다 많았고, 다른 비행경험에서도 동일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표 11> 주당근무일수와 아르바이트 비행 경험 비교

변수	비행경험	N	평균	표준편차	t
흡연	없다	365	2.57	2.07	-2.194*
	있다	128	3.04	2.06	
음주	없다	247	2.43	1.99	-2.897**
	있다	246	2.96	2.13	
무단결석	없다	444	2.62	2.07	-2.476*
	있다	49	3.39	2.09	
폭행	없다	416	2.56	2.04	-3.229***
	있다	77	3.39	2.18	
패싸움	없다	443	2.54	2.00	-4.312***
	있다	50	4.02	2.33	
뺑뺑기	없다	430	2.60	2.05	-2.698**
	있다	63	3.35	2.14	

* : $p < .05$, ** : $p < .01$ *** : $p < .001$

이러한 경향은 일일 근무시간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12>에 따르면 무단결석을 한 적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6) 패싸움이나 왕따 시키기를 한 적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이 긴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통계적으로 $p=.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가출, 폭행 경험, 패싸움, 뺑뺑기 경험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 작업 강도의 지표인 주당 근무 일수와 일일 근무 시간과 일부 비행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작업 강도가 강한 아르바이트를 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제반 비행 경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일일근무시간과 아르바이트 비행 경험 비교

변수	비행경험	N	평균	표준편차	t
무단결석	없다	459	3.27	2.08	-2.933**
	있다	51	4.51	2.95	
가출	없다	466	3.32	2.18	-2.212*
	있다	44	4.09	2.39	
폭행	없다	429	3.28	2.11	-2.216*
	있다	81	3.96	2.61	
패싸움	없다	456	3.29	2.12	-2.372*
	있다	54	4.20	2.72	
뺑뺑기	없다	443	3.29	2.15	-2.621**
	있다	67	4.04	2.44	

* : $p < .05$, ** : $p < .01$

이러한 결과가 아르바이트의 작업 강도가 비행 경험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위의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경우에도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투자하는 것은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비행 경험을 하게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에 청소년의 일일 근로 시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일부 학생들이 규정된 시간 이상을 아르바이트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1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및 관련 변수들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가운데 14.8%인 510명이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가운데 약 절반 가량은 한 번의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거의 80%에 달하는 아르바이트 유경험자들은 전단지 돌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지속 기간은 71.5%의 학생들의 경우 7일 이하였고, 73% 가량의 학생들은 주당 근무 일수가 3일 이하였으며, 일일 근무 시간은 절반 이상이 2~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주 이유는 용돈을 마련하거나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교 성적,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 비행경험, 자아 개념 등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전단지 돌리기를 한 학생들과 다른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을 비교해본 결과 아르바이트 지속기간과 강도를 나타내는 주당 근무 일수 및 일일 근무 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아르바이트 강도가 강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일수록 학교 성적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다양한 비행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근로기준법상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임금을 받고 일을 한 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질문은 지난 1년간 가졌던 직업에 대하여 묻고 있고 또한 조사가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일부 중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정도가 기존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보다는 낮지만,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중

학교 상급생이나 고등학생에 국한된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 나타난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강도와 가정의 사회적 배경, 학업 관련 변수 및 비행관련 변수와의 관계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 결과(김기현, 2003; 문성호, 2003)들이 중학생들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 앞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은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동시에 여러 가지 비행 경험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음주나 흡연 등은 충분한 용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경험은 이러한 행위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학업에 투자해야 할 시간을 일하는데 투자함으로써 학업을 소홀히 하게 되고, 금전적인 여유와 더불어 성인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해 음주나 흡연 등의 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학업 혹은 학교에 관심을 잃은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학교생활보다는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충분한 이론적·경험적 고찰 없이 독립변수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심리적·행동적 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성격을 지닌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특정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이 학교 재학 중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동시에 그러한 성향이 종속 변수와도 관계를 갖게 된다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종속변수와의 관계는 허위적인 관계에 불과할 것이다. 즉 아르바이트 경험이 비행을 초래한다거나 학업 성적의 저하

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위 선택효과(selection effect)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에 관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추구한다면 아르바이트의 학교 성적에 대한 영향은 허위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관심을 갖는 주된 이유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영향을 밝혀내기 위해서이다. 외국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크게 3가지 입장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이 우리나라의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단지 경험의 유무 수준을 넘어서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다. 경험의 유무는 물론이고 작업 시간, 작업의 종류, 작업의 내용 등이 복잡하게 얽혀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의 작업 시간을 중심으로 제반 특성을 살펴보고 아르바이트 경험 및 강도와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사안들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추후 한국청소년패널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현(2003). 일하는 고등학생들 : 재학 중 시간제 취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37집 제6호, pp. 115-144
- 김해동 · 이창한(2002). 청소년 시간제 근로의 정규직으로 가교(ladder) 역할 탐구. *직업교육연구*, 제21권 제2호, pp. 213-224
- 도종수(20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대책. *사회복지정책*, 제13집, pp.104-123
- 문성호(2003). 학생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3호, pp. 83-103
- 이경상 · 조혜영 · 박현수(2004).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I : 조사개요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철위 · 박창남 · 정혜영(2000).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 : 중 ·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형하 · 이용교(2002).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4권 제2호, pp. 89-100
- 장원섭(2001). 중 · 고등학생 시간제 취업 경험의 의미. *직업교육연구*, 제20권 제2호, pp. 95-108
- 한경혜(2000).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2호, pp. 153-180
- Elder, G. H., Jr. and Caspi, A.(1990). Studying lives in a changing society: Sociological and personological explorations. In A. I. Rabin, R. A. Zucker, R. Emmons, & S. Franks(Eds.) *Studying persons' lives* (pp.201-247) New York: Springer
- Erikson, E. H.(1959). The problem of ego identity, *Psychological*

Issues, Vol. 1, pp. 101-164

Greenberger, E. & Steinberg, L. D.(1986). *When teenagers work: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osts of employment*. NY: Basic Books

Kohn, M. L.(1977). *Class and conformity: A study in values*.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ohn, M. L., & Schooler, C.(1983) *Work and personality: An inquiry into the impact of social stratification*. NJ: Ablex

Mortimer, J. T.(1988). Work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change throughout the life course. In M. W. Riley(Ed.), *Social structure and human lives*(pp.267-284). CA: Sage Publications.

Mortimer, J. T. and Finch, M. D.(1996). *Adolescent, work, and family: An intergenerational developmental analysis*. CA: Sage Publications

Mortimer, J. T., Finch, M. D., Shanahan, M. J. & Ryu, S.(1992a). Work experience, mental health, and behavioral adjustments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2 No. 1, pp. 25-57

Mortimer, J. T., Finch, M. D., Shanahan, M. J. & Ryu, S.(1992b) Adolescent work history and behavioral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2 No. 1, pp. 59-80

Mortimer, J. T., Shanahan, M. J. & Ryu, S.(1994) The effects of adolescent employment on school-related orientation and behavior. In R. K. Silbereisen & E. Todt(Eds.) *Adolescence in context: The interplay of family, school, peers, and work in adjustment*.(pp. 304- 326). NY: Springer-Verlag

Shanahan, M. J., Mortimer, J. T., Finch, M. D., & Ryu, S.(1991) Adolescent work experience and depressive affec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4:299-317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Part-time Work Experience and Behavioral Adjustments

Ryu, Seong-Ye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time work experienc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especially work duration and intensity of the job most recently held, and various behavioral adjustment variables, based on the first-year data of the Korean Youth Panel Study. The results show that 14.8%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ey had at least one job during the last 1-year period, and that the part-time work experience had the negative relationship with socio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and school achievement, and the positive relationship with various problem behaviors. In addi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work intensity and school-related and problem behaviors showed the similar patterns. It is suggested that the explora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part-time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adjustments should be based on longitudinal data in order to properly control selection effect.

Key Words : adolescent part-time work experience, work intensity,
middle-school students, korean youth panel study

투고일 : 4월 30일, 심사일 : 6월 10일, 심사완료일 : 6월 22일

* Cheonan University